

# 쓰레기 무단투기 암체짚에 하천 ‘몸살’

### 한천·병문천·화북천 등 곳곳에 방치 쓰레기 대다수 생활쓰레기... 폐기물 쓰레기도 뒤섞여 “CCTV 없어 특정 불가능... 현장 확인 후 수거”

제주지역 하천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돼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한천 일대에는 쓰레기가 무단 투기돼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천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대부분 음료수캔, 술병, 비닐, 플라스틱 용기 등 생활쓰레기들이므로 확인됐다.

아울러 간간히 봉지에 담겨 있는 폐기물 쓰레기들도 목격됐다. 이와 함께 한천 인근 도로에도 쓰레기들이 무단 투기돼 있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버리고 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청한 오라동 주민 A(43)씨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가는 암체짚이 많아졌다”며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치우고 있는지 의문

이 든다. 미관을 해치고 있기에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쓰레기들이 대부분 하천 근처나 우거진 수풀 사이에 버려져 있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오라동주민센터에 따르면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꽂이는 5만원, 비닐을 이용해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해 무단투기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 쓰레기의 경우도 폐기물관리법 38조 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무단투기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한천 일대엔 CCTV가 없어 무단투기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라동주민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천에서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매긴 경우는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인근에 CCTV가 없어 과태료를 물리기가 쉽지 않다”며 “기능대를 편성해 주 1회 이상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문천과 화북천 일대에도 소량의 쓰레기들이 무단 투기돼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김재윤 전 국회의원 향년 56세로 별세

### 29일 서울서 숨진 채 발견



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 중이다. 김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17·18·19대 의원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4년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했다. 김 전 의원은 구속 직후 상당기간 옥중단식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열린시학’ 2020 겨울호에서 제10회 한국예술작가상을 수상하며 시인으로 등단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윤(사진) 전 의원이 29일 향년 56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쯤 서초구의 한 건물 아래에서 김 전 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인을 추락사로 추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건물 15층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21층에 있는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에는 김 전 의원의 가족이 근무했고, 김 전 의원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 여전

### 제주시, 2419건 적발·과태료

제주시가 지난 5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차나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24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주차위반이 2351건, 주차방해 55건, 표지위반 13건 등이다. 위반장소는 공동주택(1200건)이 가장 많고 이어 다중이용시설(474건), 공영주차장(297건), 공공기관(220건), 숙박시설(121건) 등 순이다.



“내일의 영광을 위해”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린 29일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내 대회 현장에서 목공예 참가자들이 침착한 자세로 경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상국기자

시는 이와관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주차방해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습 위반지역인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오는 8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불법 주차는 장애인 인자자동차 표지(주차 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이다. 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을 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번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구역 2면 이상 주차방해 시에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대어 또는 양도하거나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윤형기자

# 관광목적 제주 입도 후 확진사례 늘어

### 주간 감염재생산지수 1 넘기며 유행 확산 우려 29일 추가 확진 2명... 누적 확진자도 1264명

관광·여행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도내 감염 유행이 확산될까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6명(1257-1262번), 29일 오후 5시까지 2명(1263-1264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들어서만 2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26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1주일간(6월 19-25일 /

28명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명으로 집계됐으나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1을 넘겨 1.053을 기록하고 있다. 확진자 1명이 주변 1명보다 많은 수를 감염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 타 지역 거주자들은 모두 관광을 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던 1명도 입도한 지인과 여행을 하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전날 확진자들은

모두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 중 1명(1263번)은 제주도민이며 1명(1264번)은 서울지역 거주자다. 1263번은 자가격리 중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서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264번 역시 격리 도중 유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 만취 여성 추행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재판부 “비난 받아 마땅... 합의한 점 참작”

만취한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준강제추행과 재물손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2시쯤 제주 시내 한 술집 앞에서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목고 있는 호텔 앞까지 따라간 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만취한 피해자를 집요하게 택시까지 타고 뒤따라간 다음 기회를 포착하고 강제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학원 교사로써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경력 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다음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강민성기자

이와 함께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호텔 인근 화단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만취한 피해자를 집요하게 택시까지 타고 뒤따라간 다음 기회를 포착하고 강제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학원 교사로써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경력 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다음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강민성기자

# “6월 모의평가 국·영·수 어려웠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채점 결과

지난 3일 실시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수학·영어 영역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9일 공개한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146점으로 2021학년도 수능 144점보다 2점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국어 영역 1등급 컷라인도 132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1점 상승했다. 수학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

고점은 146점으로 지난해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보다 9점 높아졌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1등급(원점수 90점) 학생 비율은 5.51%로, 지난해 수능(12.66%) 때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일각에선 올해부터 EBS 연계방식이 간접연계로 바뀐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평가도 나온다. 올해부터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유불리에 대한 관심을 모았던 선택과목별 응시자의 표준점수 분포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어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이 72.2%, ‘언어와 매체’가 27.8%였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가 55.4%로 가장 많고, ‘미적분’ 37.1%, ‘기하’ 7.5% 순이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